

KIA 유지성 “프로 5년만에 데뷔전 만족...더 큰 꿈 꾸겠다”

8월 SSG전 등 올 시즌 세 경기 등판...2.1이닝 4실점 ‘아쉬운 성적’ “데뷔가 목표였으니 내 점수는 90점...슬라이더로 각인시키겠다”

3경기 2.1이닝 5피안타(1피홈런) 4실점 2자책점(평균자책점 7.71).

누군가에게는 한참 부족한 성적일지 모르지만 KIA 타이거즈 좌완 유지성에게는 꿈을 이룬, 다음 꿈을 꾸게 하는 소중한 기록이다.

유지성은 2020년 천안북일고를 졸업하고 4라운드 지명 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은 5년 차 선수다. 프로 첫해가 끝난 뒤 현역으로 입대, 군복무를 마친 군필 선수이기도 하다.

그리고 2024년 8월 29일 유지성은 자신의 야구 인생에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다.

유지성은 SSG와의 홈경기가 펼쳐진 이날 KIA가 4-8로 뒤진 9회초 마운드에 올라 기다렸던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 최정을 첫 상대로 만난 유지성은 좌익수 플라이로 첫 아웃카운트를 만들었다. 하지만 1루수 포구 실책으로 주자를 내보낸 뒤 한유섭에게 우월 투런포를 맞으면서 프로 첫 피홈런도 날렸다. 유지성은 이후 내야 땅볼 2개로 남은 아웃카운트를 채우고 자신의 프로 첫 등판을 끝냈다.

유지성은 9월 6일 키움전, 9월 27일 한화전에서 두 차례 더 등판을 소화하며 시즌을 마무리했다.

눈길 끄는 성적은 아니지만 유지성은 자신의 올 시즌에 ‘90점’을 줬다.

유지성은 “대비하는 게 목표였는데 올해 목표는 이뤘으니까 90점은 줘야 될 것 같다. 목표를 하나 이뤘다. 그래서 내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이 더 기대되는,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꿈이었는데 이게 현실이 되니까, 더 큰 꿈을 꾸고 현실이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큰 것 한 방을 맞기는 했지만 간절하게 기다렸던 1군 마운드에서의 첫 순간은 잊지 못했다.

유지성은 “타이트한 경기는 아니었는데 5년 만에 처음이라 인생 최고로 긴장했던 것 같다. 홈런도 맞았지만 자신 있게 던져서 후회는 없었다”며 “그렇게 많은 관심 속에서 던진 게 처음이라 긴장도 많이 했지만 너무 행복했다. 마운드에 섰을 때 팬들이 나를 못 알아봐도 ‘이게 행복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다. 즐거웠다”고 꿈을 이룬 순간을 이야기했다.

올 시즌 유지성이 1군에 등록된 일수는 15일. 보통 동안 유지성은 마운드 밖에서 ‘1군의 차이’를 배웠다.

유지성은 “훈련은 양으로 따지면 솔직히 2군 선수들이 더 많이 하는 게 맞다. 1군은 매 게임 매 게임 최선을 다해서 승리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치료 목적이나 자기 몸관리 컨디션 조절이 중요하다”며

“자기 관리가 더 뛰어났다. 거기에서 걸리는 것 같았다”고 1군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처음 1군 무대에서 이름을 알린 유지성은 통합우승을 기념해 마련된 ‘타이거즈 페스타’ 무대에서도 유승철, 김민주와 팀을 이뤄 존재감을 발휘했다.

팀 리더 유승철이 “준비는 완벽하게 됐다. 단 하나 우리 팀의 인지도가 걱정이다”고 우려했지만, 이들은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무대를 장악하고 준우승까지 차지했다.

팬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어필한 유지성은 ‘주무기’인 슬라이더로 마운드에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겠다는 각오다.

유지성은 “저라는 투수를 잘 모르실 것이다. 약간 광도규 선수랑 비슷한데 그 속에서 나만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이런 투수구나. 그래서 1군에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제1 구종은 슬라이더다. 황으로 휘는 슬라이더가 좋고 두 번째는 같은 코스에서 노는 직구다. 공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코너 코너로 타자를 승부하면 더 위력적으로 될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동기 부여는 항상 갖고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잘 치르고 나니까 뭔가 더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로 5년 차에 1군 데뷔 꿈을 이룬 KIA 타이거즈 좌완 유지성이 위력적인 슬라이더로 내년 시즌 더 많은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선수들, 12월도 ‘바쁘다 바빠’

KIA 타이거즈의 숨 가뻐던 우승 시즌, 아직도 선수들의 일정은 남았다.

KIA는 ‘통합 우승’ 행보를 하면서 어느 때보다 바쁜 2024시즌을 보냈다. 가장 늦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던 선수들은 우승팀 일정도 소화하느라 바빠졌다.

지난달 27일 현대자동차그룹 정인선 회장이 직접 마련한 축승연 행사가 열렸고, 30일에는 팬들과 함께 우승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금남로 1.2km에서 카퍼레이드에 나섰던 선수단은 이날 저녁에는 ‘V12 타이거즈 팬페스타’ 행사를 갖고 다시 한번 우승을 기념했다.

이날 행사로 구단의 공식 행사는 마무리됐지만 시상식과 결혼식 등이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다.

6위로 지난해를 마감했던 KIA는 각종 시상식의 관람자였다. 박찬호가 초대 수비수 수상자로

13일 골든글러브 시상식
박준표·서건창·김주찬 등
광주·서울·부산서 결혼식
김선빈 자체 해외 캠프도

KIA 자존심을 지켰고 최형우가 ‘2023 스포츠서울 올해의 상’ 재기상, 윤영철이 조야계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에서 조야바이톤 에이스상을 받게 전부였다.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도 KIA는 빈손이었다.

하지만 올 시즌은 상황이 다르다. 김도영이 KIA는 물론 KBO리그에서 가장 바쁜 선수가 됐다.

KBO리그 MVP에 빛나는 김도영은 연일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다.

김도영은 3일에도 ‘2024 조야계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주인공으로 상금 1000만 원과 트로피를 받았다. 김도영은 팬케스트 셸링 인기상과 팬덤 플레이어상도 받았다.

이날 이범호 감독(감독상), 정해영(최고구원 투수상)도 시상대에 섰다. 또 전 세계적으로 ‘뽀끼뽀끼’를 유행시킨 KIA 타이거즈 응원단도 SNS 핫 이슈상을 받았다.

오는 13일 골든글러브 시상식까지 KIA는 ‘시상식의 시즌’을 보낼 전망이다. 특히 김도영은 예능 프로와 CF 촬영도 하는 등 시즌보다 더 바쁜 비시즌을 보내고 있다.

주말에는 선수들이 하객으로 분주할 전망이다. 이번 겨울 예년보다 많은 이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7일 투수 박준표를 시작으로 8일에는 외야수

김석환이 광주에서 ‘새신랑’이 된다. 12월 두 번째 주말에는 선수들이 서울로 향한다. 14일 오전에는 올 시즌 베테랑의 힘을 보여준 내야수 서건창이 웨딩마치를 울리고, 오후에는 KIA에서 수석코치를 맡았던 이순철 해설위원이 혼주로 선수들을 맞는다. 이날 이위원의 외아들인 이성근 롯데 코치가 결혼식을 올린다.

KIA로 돌아온 김주찬 벤치 코치는 22일 부산에서 ‘폼질남’ 대열에 합류한다.

등직한 불펜 포수로 활약해 온 최규상과 마스크 ‘호걸이’, KIA에서 뛰었던 김태진과 문경찬도 결혼식을 올리면서 선수들도 덩달아 바빠 예정이다.

내년 시즌을 위한 준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운동을 하면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자체 해외 캠프’도 준비되고 있다.

김선빈이 내년 1월 9일부터 박찬호, 박정우, 한준수와 ‘오기나와 캠프’를 진행한다. 김선빈이 후배들을 위해 운동장 사육료, 숙박비 등을 부담하고, 박찬호도 차량 지원에 나서서 등 2025시즌을 위해 의기투합한다. /김여울 기자 wool@

기왕이면 수석...윤이나 LPGA 투어 Q시리즈 6일 출격



상위 25위까지 내년 투어 출전
박세리 등 수석한 한국 선수들
신인왕·메이저 우승 등 ‘활약’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주요 개인 타이틀 3관왕에 오른 윤이나(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의 관문인 퀘리파잉시리즈(Q시리즈) 최종전에 오는 6일부터 출전한다.

LPGA 투어 Q시리즈는 10일까지 다섯 동안 90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치러지며 상위 25위 이내 선수에게 내년 LPGA 투어에서 뛸 자격을 준다.

Q시리즈 최종전은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의 매그놀리아 그로브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1~4라운드는 폴스 코스와 크로싱스 코스에서 번갈아 치른다. 72홀 성적으로 컷을 통과한 선수만 크로싱스 코스에서 마지막 6라운드를 치러 순위를 정한다.

KLPGA 투어 이번 시즌에 상금왕, 대상, 평균타수 1위를 석권한 윤이나는 세계 최정상급 선수 부럽지 않은 장타력에 탄도가 높고 스핀이 많이 걸리는 아이언과 웨지샷, 그리고 견고한 퍼팅 실력까지 갖춰 25위 이내 입상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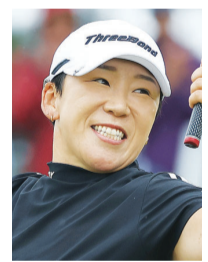
관심은 수석 합격에 쏠려 있다. 지금까지 수석으로 합격한 한국 선수는 박세리, 최혜정, 김인경, 이정은, 안나빈, 유해란 등이다. Q시리즈 수석 합격자는 대부분 LPGA 투어에서 신인왕에 오르거나 메이저대회를 제패하는 등 성공했다.

/연합뉴스

호주여자오픈 우승 신지에 세계 25위로 상승

호주여자오픈 골프대회에서 우승해 프로 무대 통산 65승 고지에 오른 신지애(사진)가 세계랭킹을 4계단 끌어올렸다. 신지애는 3일 발표한 여자 골프 주간 세계랭킹에서 25위로 올랐다. 지난주에는 29위였다. 호주여자오픈 우승으로 세계랭킹 포인트를 16점이나 쟁긴 덕분이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일본여자프로골프



(JLPGA) 투어 등 랭킹 포인트가 많은 대회가 열리지 않아 세계랭킹 30위 이내 선수 가운데 신지애 말고는 거의 변화가 없다. 유해란(7위), 고진영(10위), 양희영(12위), 김효주(23위), 윤이나(30위)도 제자리를 지켰다. /연합뉴스

임성재·김주형, 우즈 주최 히어로 월드챌린지 출전

임성재와 김주형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개최하는 히어로 월드 챌린지(총상금 500만달러)에 출전한다.

우즈 재단이 주최하는 히어로 월드 챌린지 올해 대회는 5일부터 나흘간 바하마의 올버니 골프코스(파72·7449야드)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규 대회는 아니지만 세계 랭킹 포인트가 걸려있다. 세계 정상급 선수 20명이 출전해 나흘간 72홀 경기로 순위를 정한다.

20명은 그해 4대 메이저 대회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자, 세계 랭킹 상위 11명, 지난해 대회 우승자, 초청 선수로 구성된다.

올해 대회에는 남자 골프 세계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를 비롯해 루드비그 오베리(스웨덴), 윈덤 클라크, 패트릭 캔틀레이(이상 미국) 등이 출전한다.

우즈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불참하고, 또 4대

메이저 우승자 가운데 마스터스 챔피언 셰플러만 나온다. PGA 챔피언십과 브리티시오픈을 석권한 잰더 쇼플리(미국)는 연말까지 휴식을 택했고, US오픈 우승자 브라이언 디샴비(미국)는 LIV 골프 소속 선수다.

올해 마스터스와 파리 올림픽에서 우승한 셰플러는 이번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임성재와 김주형은 대회 첫날인 한국 시간으로 6일 오전 1시 30분 같은 조로 1라운드를 시작한다.

임성재와 김주형은 2022년 이 대회에 처음 출전해 임성재가 8위, 김주형은 10위의 성적을 냈다.

임성재는 10월 PGA 투어 조조 챔피언십 이후 1개월여 만에 필드에 나오고, 김주형은 같은 기간 열린 DP 월드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최근 출전 대회였다.

히어로 월드 챌린지 우승 상금은 100만달러(약 14억원), 최하위인 20위를 하더라도 한국 돈으로 2억원이 넘는 15만 달러를 받는다. /연합뉴스